

2025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5.10.28.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9/10	5	1	15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김욱 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섭교 위원, 정성일 위원, 백강희 위원,
문선혜 위원, 이현욱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진종재 사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5	2	-	3	10	-	10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0	-	-	10

다. 전월(9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총청권 출생률 관련 보도> 총청권의 출생률과 혼인을 증가와 세종시 인구 감소 보도 관련하여 수치만 나열할 뿐 전문가들의 의견과 심층적인 분석이 없어서 아쉬웠음.	<팩트 체크>뉴스 등을 통해서 세종시 출생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이유와 대전 지역으로의 유입 효과 등을 검증하는 보도를 준비중임 <25. 10월 조치>	'25.9월
보도	<뉴스 배경 멀티비전 LED 관련> 뉴스를 보면서 앵커는 깔끔하게 보이는데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멀티비전의 영상 해상도가 떨어져 기능이 노후화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음	뉴스 앵커 뒤 배경의 LED판 해상도 개선을 위해 1차적으로 조명과 영상을 교체한 상황임. 거칠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음. <25. 10월 조치>	'25.9월
보도	<지역 현안 관련 보도> 지천담과 독립기념관 관장 등 우리 지역의 이슈 보도를 잘 담아주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함	지천담과 독립기념관 등 지역 현안 문제들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듭이 지어질 때 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임 <25. 10월 조치>	'25.9월
보도	<카이스트 석학 중국 이전 관련 보도> 중국 이적 문제를 보도하면서 국부 유출 중에 하나로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단순히 제도적 관점이 아닌 더 깊게 심층적으로 바라보길 바람	그 보도의 시사점은 국내 연구 활동 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시시각각>이나 추가적인 보도를 통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필요한 것인지 보도하겠음 <25. 10월 조치>	'25.9월
교양	<시시각각 주제 관련> 올해가 선거철이다 보니 시시각각 38회 방송분 중에서 절반이 선거와 정치 이슈였는데 더 폭넓게 다양한 지역 이슈들을 다뤄주길 바람	연말부터 올해까지는 탄핵과 비상계엄, 조기대선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었으나 최근에는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25. 10월 조치>	'25.9월
교양	<오늘M - 현월 관련 인터뷰 > 현월이 소중한 생명을 이어준다는 콘셉트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인터뷰 내용들(봉사시간, 승진, 초코파이 등)이 너무 가볍게 포장된 것 같음	리포터가 현장의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말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진중할 때는 진중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음. <25. 10월 조치>	'25.9월
기타	<신규 프로 홈페이지 업로드> <애들은 가라 1호점>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봤음. 다만 유튜브에는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대전MBC 홈페이지에는 아직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음	유튜브에는 올라와 있는 걸 확인했는데 대전MBC 홈페이지에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것은 전산실 홈페이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음. <25. 10월 조치>	'25.9월
기타	<뉴스 앵커 표정 관련> 화재나 고독사 보도 관련해서 앵커가 뉴스 내용을 전달할 때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서 앵커의 표정이 밝아서 어울리지 않았음	앵커 표정 관련해서는 무거운 주제일 때도 표정이 밝다는 모니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음 <25. 10월 조치>	'25.9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5년 10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임기)
위원장	김 욱	배재대학교 총장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문화단체	25.5.1~27.4.30
부위원장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김미화	대전YWCA가족센터 소장	대전YWCA	여성단체	24.5.1~26.4.30
위원	이성교	재능나눔 징검다리 회장	재능나눔 징검다리	청소년단체	24.5.1~26.4.30
위원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총보팀장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노동단체	24.5.1~26.4.30
위원	문선혜	전앤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5.5.1~27.4.30
위원	박은숙	지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원도심문화예술인행동	문화단체	25.5.1~27.4.30
위원	이현욱	우송대 글로벌미디어학과 교수	한국영화교육학회	언론학술단체	25.5.1~27.4.30
위원	최승인	초록우산 충청권역총괄본부장	대전광역시가족센터	소외계층대변	25.5.1~27.4.30
위원	조원희	(주)지란지교시큐리티 대표이사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	대전세종충남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	25.5.1~27.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단독 보도 이후 후속 취재 관련> 사회복지시설 비리의혹이나 금산군 전 간부의 수입차 무상 사용 등 단독 보도한 내용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지 후속 취재를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5급 3특 전략 확정 관련 보도> 5급 3특 전략 확정 관련 보도에서 대전,충남 메가시티 연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음. 자세한 내용을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JMS 관련 보도> JMS, 카이스트 총장 포섭 시도라는 보도를 봤는데, 이 광형 총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체타이틀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아 보이고 심층 취재가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보도	<캠보디아 송환자 배당 관련 보도> 캠보디아 구금 국내 송환자 70%를 충남경찰청으로 배당했는데, 송환자 70%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남 지역인지 타 지역에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한화이글스 관련 보도> 한화이글스 관련 흥미로운 현상이 대전 지역 곳곳에서 응원전이 열리고 있는데 대전시민들의 뜨거운 야구사랑 현장을 담아보면 어떤지?	회의록 첨부	○		
교양	<봉사 현장 소식 관련> 연말에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민간 복지단체의 활동을 자주 조명해주시기를 바람	회의록 첨부	○		
교양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오늘M' 초대석에서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시의 적절하게 잘 다루었는데, 방송에서 지속적인 예방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회의록 첨부	○		
기타	<유튜브 채널 운영 관련>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를 강화할 때 단순한 스포츠 홍보가 아닌 지역민의 정체성과 감정이 응집된 팬덤 문화를 포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켰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기타	<시시각각 미리보기 관련> 홈페이지에 <시시각각> 코너를 보면 다시보기와 미리보기가 있었는데 23년 1월 1일부터는 미리보기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고 있음.	회의록 첨부	○		
기타	<홈페이지 개편 관련>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아졌지만 세세하게 놓친 부분들이 있음. 현행 프로그램 현황과 편성표, 뉴스 다시보기, 노이즈 등 수정 보완이 필요해 보임	회의록 첨부	○		

2025년 10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5년 10월 28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9명)

김욱 위원장, 김미화 위원, 이섬교 위원, 정성일 위원, 백강희 위원,
문선혜 위원, 이현옥 위원, 최승인 위원, 조원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6명)

진종재 사장, 이은표 경영국장, 임세혁 편성국장, 김지훈 보도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경영국장

날씨도 쌀쌀한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 10분 중에 9분이 오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총 3건입니다. 기타 문의 2건과 요청 사항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MBC 진종재 사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진종재 사장

어제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가을 한가운데 들어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저희 제작진이 한여름 동안 제작했던 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번에는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김욱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욱 위원장

오늘은 한 분이 못 오시고 9분이 참석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잘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를 맞아 대전MBC 직원들과 우리 위원님들도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원희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조원희 위원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대전MBC 유튜브 채널 내 지역 스포츠 콘텐츠 확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주말에 한화가 코리아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면 시의성이 떨어지는 이슈가 될 뻔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월부터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전MBC가 유튜브 채널 내에서 한화 중심의 스포츠 콘텐츠를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눈에 띄게 보였던 것 같아요.

지상파 방송은 형식적인 제약이 어느 정도 있지만 유튜브는 자유로운 기획과 참여 중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 구조를 실현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단순하게 스포츠 홍보를 넘어서서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정체성과 감정이 응집된 팬덤 문화 같은 것을 포용하는 쪽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화에서도 이글스TV라고 해서 자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매개체를 통한 콘텐츠는 지역성이나 공공성에 새로운 결합 모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꼭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공영방송의 유튜브 채널이 젊은 세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험적인 공공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이 아닌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 시청자와 댓글이나 라이브 커뮤니티 같은 기능으로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기존의 미디어가 갖지 못한 창의적인 공공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시청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흐름에서 유튜브 기반의 콘텐츠가 특히 2030 세대가 유입될 수 있는 관문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야구뿐만이 아니라 일상 그리고 유머러스함이 조합돼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콘텐츠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한화이글스 중심의 콘텐츠를 출발점으로 하되 향후에 지역에 있는 e스포츠 그리고 생활체육, 청소년 스포츠까지도 확장을 해서 지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질 수가 없는 게 지역 상권과 커뮤니티라는 측면인데요. 경기장 주변 상권이라든가 지역 팬모임이라든가, 아마추어 리그도 굉장히 대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활 밀착형으로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대전MBC에서 진행하고 계신 유튜브 스포츠 콘텐츠 강화라는 부분이 지역성과 공공성을 같이 살려서 시대적인 과제에 부합하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욱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미화 위원

저는 <애들은 가라> 특집 프로그램 네 편을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 맞춤형으로 확대해주고 체험하는 형태로 팝업 스토어를 운영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뷰티존에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마카롱과 음료수를 맛보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헤어, 메이크업, 의상, 가방까지 소품으로 맞춰 주니까 거기에 나온 해녀 2분이 주인공으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주었고요.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분들이 참여 활동한 고추 따기는 일꾼도 섭외하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추억의 공간을 AI로 사진을 재현해서 실감 나게 하다 보니 감동의 울림이 더했고, 진행자가 공감적인 리드를 많이 해주고 너무 과하지 않게 진정성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태안 신야리 해녀마을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통해 해녀라는 직업적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좋았습니다. 또한 발일을 하면서도 해녀 일을 하는 여성의 삶을 조명해 주고, 특히 나이 많은 은퇴 해녀 인터뷰를 보면서 '이 분들이 다 은퇴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기 해녀까지 나오면서 아기 해녀를 응원해 주고 바닷가 마을에서 사는 여성들의 삶을 상세하게 보여 주면서 재미도 주는 예능프로그램이라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지역을 찾아가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우리가 그 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의 당신을 함께 안아 준다' 이런 메시지를 멘트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승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승인 위원

저는 <오늘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대전 학하 사랑 봉사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시 속 작은 텃밭을 활용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새마을 부녀회의 봉사 현장을 따뜻하게 담아냈습니다. 울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도 정성껏 가꾼 농작물을 지역의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로 일반 가구 외에도 독거노인이나 중장년 고립 가구 등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기시킨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여름나기 보다 더 어려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과 나눔의 손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한 모금이나 행사가 주목받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지역 곳곳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민간 복지단체의 활동을 자주 조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협력 체계가 우리 사회에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자생적 지역 공동체들의 연대와 나눔을 널리 홍보하는 등 따뜻한 겨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제작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월 15일 <오늘M> 초대석 코너에서는 심각한 청소년 도박 문제를 다루셨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온라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이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시의 적절하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제도가 대전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지역성과 공익성을 모두 갖춘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연령 구분과 특성을 근거로, 단순히 미성년자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연장선상에서 초년층, 즉 19세에서 20세까지의 포괄적인 문제를 조명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도박 문제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발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추적 보도와 예방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방학 시즌처럼 청소년들이 온라인 환경에 더욱 노출되는 시기에 맞춰, 자진 신고 제도나 상담센터 이용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은 지역사회가 청소년 도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의미 있는 기획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남은 기간에도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비춰 주는 방송이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김옥 위원장

최승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섬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섬교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MBC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를 다룬 보도가 있었는데요. 청소년 도박이 전국 1위가 대전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교육을 받은 했었는데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도박이라는 단어 어휘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박이 아니라, 아이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오리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릴까, 오른쪽으로 돌릴까' 한쪽에 돈을 거는 건데요. '누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할까' 하는 형태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쉬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보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엘리트 집단 도시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도박이 1위입니다. 아이들도 도박으로 생각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시각각'이 '시간의 흐름'을 뜻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면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 '변화하는 시각'을 의미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

니다. 저처럼 프로그램의 의미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시시각각> 제목 아래에 짧게라도 이런 의미를 안내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지역민들의 궁금한 이슈와 현안을 친절하게 MBC가 풀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노동 실태와 대책을 다룬 걸 보면서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법이 있다는 점과 그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는 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보면서 많은 걸 느꼈지만 한 편으로 그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 브로커, 인신매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주제 역시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시각각> 홈페이지를 보면 다시 보기와 미리 보기 항목이 있는데요. 미리 보기가 2023년 1월 1일 대덕특구에 관한 보도 이후에는 업로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미리 보기를 보면서 이번 주제의 내용을 미리 짐작하고 출연 패널 정보를 상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최신 내용으로 '미리 보기' 항목을 업데이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옥 위원장
이섬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옥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현옥 위원
저는 9월과 10월 단독 뉴스 보도를 주목해 지켜봤습니다. 베트남 여성분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몰래 도용해서 문제가 돼서 귀화 신청이 늦어졌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어제도 단독보도가 나온 걸 봤는데 한 달 만에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330만 원 중 30만 원은 소송비로, 300만 원은 위자료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MBC에서 이런 단독 보도를 내주지 않았다면 검찰 측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월 방송에서 다뤄졌던 사회복지시설 비리 의혹이나 금산군 전 간부의 고급 수입차 무상 사용 문제 같은 사안들도 해당 사건들이 그 이후 어떤 판결이나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는지, 그리고 파면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후속 취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0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이후 복구 과정과 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에서 5극 3특 전략 확정 관련 내용에서는 대전·충남 메가시티 연결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영남권 사례는 화려하게 얘기를 해 준 반면, 대전·충남·세종 지역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전국의 버스 사업자 관련 보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복합터미널의 수입 적자 문제를 다룬 점은 의미 있었지만, 내부 상인 세금 감면 조치 등 일부 내용은 다소 편향적인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10월 22일 <오늘M>에서 '캘리그래피에 담은 위로' 편은 대전·세종·충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과 대전문화재단이 6개월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장애 학생과 부모, 예술가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의 캘리그래피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옥 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정성일 위원
이번 달에는 둔산여고 급식 문제 관련 보도가 5건 나왔는데요. 보도의 흐름이 계속 궁금한 부분을 짚어주고 소식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파업이 유예되었지만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기사로 시작해, 이후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담으면서 입장이 어떤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초기 보도에서 조리원들은 “노동 강도가 문제 있고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또 교장은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양보를 한 상황이다.” 또 학부모인 학교 운영위원장은 “자녀에게 밥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좋겠고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각 자의 입장이 담긴 보도를 봤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여러 입장들이 나왔는데, 조리원 측에서는 “기름 재활용은 학생 건강 문제인데 교육청의 해결 의지가 없다”, 또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밥을 먹으로 나가기 불편하다”, 또 교장은 “교섭권이 있는 교육청과 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희망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석식 중단 이후 중식도 중단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석식 중단 문제를 다룬 보도에서는 조리원 측은 “석식은 우리가 폐쇄한 게 아니다. 제공하고 싶다”는 입장이고, 학교에서는 “교섭과 인사권에 대한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석식 중단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또 교육청은 ‘운영위의 결정으로 중단된 석식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보도들을 연속해서 보니, 처음에는 교육청과 학교와 급식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인 줄 알았는데 또 석식을 중단시킨 결정 주체는 학교 운영위원회인 학부모회였다는 걸 보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장기화 되는 문제인 만큼 언제 보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전MBC는 태안 화력에 대해 보도를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도를 보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폐쇄된 1호기 노동자가 전원 재배치되는 보도를 봤고, 다른 하나는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두 가지 보도를 봤는데요.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지 않고 재배치

됐지만 기사를 보니 절반이 경북 구미로 재배치됐더라고요. 과거 대전MBC 보도에서 서해안에 태안·보령 등 여러 화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지만 새로운 친환경 발전소 건설은 충남 지역에 건설되지 않고 경기도권에 건설되는 문제, 또 충남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재배치가 이뤄지는 상황을 보니 서해안 도시가 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 지역 언론사에서도 지역의 문제인 만큼 대응책 마련에 힘을 보태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김충현 노동자 사망 보도는 대전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고 이와 관련해 수상도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분들이 대전MBC 보도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전MBC가 지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까지 보도 해주길 바랍니다.

유등교 가설교 안전 문제가 세 차례 보도됐습니다. 11일에는 문제 제기, 14일에는 긴급 점검 보도, 23일에는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후 안전 대책이 마련되는지 또는 마련되지 않는다면 빨리 마련되게 하는 방법은 언론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보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관련 보도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JMS, 카이스트 총장 포섭 시도...이광형 포섭 거절'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포섭 시도'라는 표현은 이광형 총장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를 전체 타이틀로 사용한 점은 다소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카이스트는 1990년대부터 JMS 관련 문제에 매우 민감했는데, 학교 내부에 '안티 JMS 운동 본부'가 있을 정도입니다. 졸업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암흑 물질 이야기를 종교 단체와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우주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전산 전공 교수가 종교 단체와 암흑 물질 얘기를 하느냐" 하며 말도 되지 않는 변명에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도 카이스트는 유사종교 단체인 창조과학회 수장급 인사가 10년 넘게 부총장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광형 총장은 포섭을 시도하려 했고 총장 선거를 앞둔 음모라는 주장을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그 만남 자체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의존적인 기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변명적인 자기포장을 타이틀로 하기 보다는 이 문제는 심층 취재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가 급하다면 한쪽의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내보내기 보다는 비판하는 측과 당사자의 입장만 객관적으로 담아서 내보내고 그 이후에 기자들이 심층 취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송환자 약 70%를 충남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MBC에서도 보도됐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보도됐습니다.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왜 충남 경찰청에 70%이지?", "국내 송환자의 70%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남 지역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남 경찰이 관련 수사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되는

결로 확인을 했는데, 보도만 봤을 때는 타 지역에서 오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MBC 보도에서 경찰측 인터뷰를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이런 보도를 할 때는 부작용을 고려해서 멘트를 잘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웨덴 저탄소 에너지 90% 전기화 관련 보도를 봤는데요. 멀리 다녀온 만큼 이 보도가 후속 보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 선진국 취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도 기획하고 계속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비교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면 스웨덴은 저탄소 에너지로 99% 전기를 생산하며, 그 중 재생에너지가 70%이고, 원자력이 30%라는 내용인데요. 반면, 한국은 재생 원자력을 합쳐도 약 42%에 불과하고, 화석 연료는 56%에 달합니다. 비교를 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철강 분야에서도 저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나옵니다. 저는 9월 15일 오마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목이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비교 충격적 결과...한국이 부끄럽다"인데, 중국산 시멘트는 물을 섞었을 때 냄새가 나지 않는데 한국산 시멘트는 페타이어를 갈아 섞어 만들어서 악취가 심하고 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환경 선진국에 가서 취재한 것과 비교해서 보도한다면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들이나 기업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해 온 김에 한국과 잘 비교해서 자극할 수 있는 보도를 후속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정성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선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문선혜 위원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 간략하게 첨언을 드리자면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뉴스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중고거래사기 등 그 범죄 규모나 피해자 수가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본인들도 자신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지도 모른 채 가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일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대규모로 송환하면서 70% 이상이 충남경찰청 관할로 보도됐는데요. 저도 그 이유에 대해서 후속 보도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원희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스포츠 등의 밀착형 보도나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어떠한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도 한화이글스 팬으로 흥미롭게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대전 곳곳에서 응원전이 열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학관이나 야구장 그리고 한빛시민광장에서도 응원전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 언론으로서 대전시민들의 뜨거운 야구 사랑 현장을 담아보면 즐거운 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개편된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UI는 깔끔하고 가독성이 좋아졌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세하게는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메뉴를 클릭하면 서브 메뉴에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하는데, <애들은 가라 1호점>은 현재 방영중임에도 숨겨져 있고, 종영 프로그램인 <오지랴 보건설>만 서브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편성표 메뉴에서는 TV 편성표는 나와 있고, 라디오 편성표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개편 과정에서 이런 디테일을 놓치신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옥 위원장

문선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강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백강희 위원

저는 <시시각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을 좋아하다 보니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은 다른 여타 프로그램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다른 토론 프로그램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발견하고 끝나는 것에 반해서 <시시각각>은 주요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대안책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12일에 방영된 <시시각각>의 주제가 '토론 없는 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이었는데, 토론 프로그램이 '토론 자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시청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 주제는 '토론 없는 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이었는데 그 안에서 논의된 세부 질문이나 주제는 여전히 갈등의 문제, 갈등을 토론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갈등과 문제의식 해결 방안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주제를 통해 논의 했었던 방향이었는데 이번에 대 주제처럼 '토론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봤지만 그렇지 않은 점에 다소 아쉬웠습니다. 예컨대 토론이 부족하다는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왜 토론문화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또 건강하고 건설적인 토론문화를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인 토론의 방법론들 이런 부분들을 논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8월에 한겨레가 창간 기획으로 '한국의 대화, 왜 필요한가'라는 시리즈를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와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으면 밥도 같이 먹기 싫다는 주제로 연속 시리즈물을 했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대 주제에 맞게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고, 대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시시각각>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그런 부분들도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개편하면서 놓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보기를 보다가 발견한 부분인데요. 10월 25일자 <뉴스데스크> 다시보기를 보면 보통 타이틀과 앵커 멘트 후에 기자 리포팅이 이어지는데 그 날 영상은 바로 기자 리포팅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2일자 <뉴스데스크> 다시 보기 영상에서는 영상초반 타이틀이 나온 직후에 사람이 한숨 쉬는 듯한 노이즈가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백강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교 위원님께서 '청소년 도박, 대전이 전국 1위'라고 언급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도박이라고 하려면 베팅 금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청소년들이 단순히 재미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는 것도 도박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냥 게임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부분은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한화이글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정말 궁금한 건 대전지역민들의 한화사랑은 흥미로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보통 대전하면 지역에 대한 사랑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지역민들의 한화사랑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대전의 숨겨진 애향심이라는 주제를 다뤄봐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김지훈 보도국장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관련 유튜브 콘텐츠 활성화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프로야구 위주로 집중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작권 문제로 경기 영상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보이는 라디오' 형태의 해설 중계를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TJB보다 조금 늦었지만 구독자나 동시 접속자 수를 보면 TJB에 버금가게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 형태를 고민하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른 스포츠 분야로의 확대도 말씀하셨는데 인력, 장비 등 들어가는 품이 지상파 방송 수준으로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규모가 확대되면 역력이 있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시각각>관련해서 홈페이지에 2023년부터 미리 보기가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전에는 <시시각각>이 보도국 소관이었고, 2023년 1월에 <시시각각>이 보도국에서 편성국으로 이관되면서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 다시 보도국으로 복귀했음에도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있었고 현재는 제작자가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개편중인데 80% 정도만 완료된 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어제 뉴

스도 업로드가 되지 않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달 말까지 개편을 종료한다고 하니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을 수렴해서 전산실에 전달해 개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 보도 이후의 후속 진행 상황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말 기획 뉴스로 취재 후기 같은 뉴스를 종합해서 할 텐데 그 때 후속 조치 사항들을 총 망라해서 정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5극 3특 문제 관련해서 대전·충남 지역은 현재 행정통합 이슈가 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과 대전·충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뉴스를 몇 개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이 사안을 심도 있게 접근하는 뉴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일 위원님께서 카이스트 총장의 JMS건 보도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당시 금요일 정부 출연연 국감때 국회의원이 질의하고 총장이 답변한 내용을 토막소식으로 나온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인데요. 카이스트가 JMS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기회가 되면 향후에 보강 취재를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 카이스트 총장 후보가 두 배수로 압축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감 때 질의도 2019년 건인 걸 보면 서로 제보와 투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간결하고 단순하게 접근하자는 측면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송환자 수사 관련해서 충남 경찰청으로 많이 배당된 이유는 충남의 사이버수사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서울 본청에서 충남청으로 많이 배당을 했다는 게 전언입니다. 당시 서울 본사에서는 지역 배당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으로 많이 배당된 이유가 충남에 사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충남에서 수사를 잘해서 이쪽으로 배당된 것이다.’ 라는 점을 본사에 올리고 싶었는데 본사에서는 전체적인 리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할 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범죄자들이 충남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충남의 수사 역량 때문에 충남으로 온 것뿐이다.’ 라는 점을 명확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청자들에게는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태안 유류오염 사고’나 ‘무안공항 참사’처럼 지역명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오명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주지해서 오명을 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기사상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관련 리포트가 나가는데 이 때도 보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이글스 관련해서 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내일부터 관련 뉴스를 할 예정이고요. 또 이승섭 차장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팬덤도 넣어서 11월 중순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시민들의 팬덤이나 대전

의 문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혁 편성국장

<애들은 가라 1호점>이 12월말까지 방송 될 예정인데요. 전반기에 <오지랴 보건실>을 통해 청소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실버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공영방송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촬영은 모두 마쳤고, 편집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6회까지는 태안이고 7회부터 12회까지는 서천이 방송됩니다. 호평 감사드립니다.

최승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하 사랑 봉사단’ 관련해서 연말이 될수록 봉사자들에 대한 조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겨두고 봉사 활동 등에 대한 방송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리본 상담소’의 경우, 경찰분이 나오셔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이야기를 다룬 바 있는데요. 편성 특성상 같은 아이터를 지속적으로 다룬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네’ 하는 평가를 듣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터가 있으면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 아동과 가족의 목소리를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방송은 지난 22일 방영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행복한 우리 앙상블’ 공연을 다루려 했는데 ‘APEC 정상회의’ 일정으로 인해 이번 주에는 <오늘M>이 편성되지 못해서 다음 주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관련 방송은 서로 간에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라이브 라이프 사운드> 프로그램이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도시의 정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티 인 더 가든>이 11월 중순에 편성될 예정이고, UHD 다큐멘터리 <더 페퍼스 그 매운맛>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4부작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를 보시고 다소 혼선을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이 홈페이지 첫 오픈일이라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편성표의 경우 전산실에서 직접 입력해 등록하는 방식인데, 현재는 TV편성표만 우선 적용이 완료되었고, 라디오 편성표는 곧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TV 정규프로그램 중 일부가 누락된 부분은 새 프로그램이 생길 때마다 편성부서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현재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누락된 것인지, 혹은 단순히 등록이 지연된 것인지 확인 중이고 원인 파악 후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옥 위원

청소년 도박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다 더 심각한 건 불법 대출입니다. 청소년들이 돈이 없으니 까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는데요. 어플을 깔면 전화번호를 가져가는데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학생 두 명이 돈을 빌려갔는데 대신 갚아주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대출금이 10만 원인데 55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지금 학교에 못 나오고 있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출을 해준 쪽에서 학교 옆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학생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올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취재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김옥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진종재 사장님 인사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옥 위원장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워 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진종재 사장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홈페이지까지 저희 전 영역의 플랫폼에 걸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전해주시는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관련 보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탄소중립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됩니다. 보도국 기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충남 지역이 화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지역이라 이런 리포트나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아 관련 주제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은표 경영국장

이상으로 10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